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찰경영 방안*

조기 룡**

- I. 서언
- II. 포스트 코로나와 사찰경영의 이해
- III. 현황 및 문제
- IV. 대응 방안
- V. 결론

■ 한글요약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불교는 사찰경영을 걱정한다. 걱정의 대부분은 종교 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겨나는 교단 재정의 감소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코로나의 공포는 종교로서 불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기능은 본래 인간에게 안녕과 행복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이는 붓다의 전도선언과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찰경영의 현안인 신행과 보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더불어 불교가 사회적으로 수행할 종교적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사찰경영을 고민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행과 보시는 사이버와 온라인의 관점에서 모색될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종교적 기능은 공공성 강화와 위로·안정 제공의 관점에서 모색될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 19,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사찰경영, 사찰재정, 종교의 공공성, 종교의 기능, 사이버 포교, 온라인 보시

I. 서언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를 가리키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라는 신조어가 일상용어가 되어있다. 포스트 코로나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19

* 본 논문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7권 1호(2021)에 수록된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를 사찰경영의 관점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 동국대학교(서울) 불교학술원 교수

사태의 긴 터널을 지난 후 펼쳐질 세상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에는 긴 터널의 끝에서 조차도 코로나 19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상황이 전제되고는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¹⁾

종교는 인간의 본연과 인간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어찌면 코로나 19 사태는 인간의 본연적 모습과 인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기를 요청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마치 중세유럽의 흑사병을 현재 시점에서 체험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마저 느꼈었다.²⁾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공포가 지금이 종교로서 불교가 그 역할을 다할 때임을 이야기해준다. 모든 종교의 본연의 역할은 ‘인간의 안녕과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고 한 붓다의 전도선언에서도 확인되어진다. 불교의 존재 이유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기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불교가 그 존재 가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하겠다.

II. 포스트 코로나와 사찰경영의 이해

1.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2019년 발생하여 2020년에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전염병 세계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 현상까지 유발한 코로나 19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새로운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핵심은 언택트(untact) 내지 비대면(非對面)이라고 하겠다. 이는 코로나 19가 발생시킨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사회변화다. 포스트 코로나는 이러한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예측과 처방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코로나 19가 초래한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모든 노력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겠다.³⁾

2020년 4월 3일, 헨리 알프레드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바꿀 세계의 질서(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면서 이 질환이 가정과 의료는 물론 교육과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기존 사회 질서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다.⁴⁾

2020년 3월 30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하비에르 솔라나(Javier

1) 김기봉(2020), 111.

2) 조기룡(2020a), 33.

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1322>

4) <https://www.wsj.com/articles/the-coronavirus-pandemic-will-forever-alter-the-world-order-11585953005>

Solana)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워질 것이다(Our post-coronavirus world will be built on what we say and do now)>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코로나 19가 인류 공동의 적이며, 각 국가가 투명성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인 협력을 통해 방역과 예방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

코로나 19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 외에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는 한편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인류가 코로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게 불가피해졌다는 개념에서 나온 용어다. 위드는 영어 with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라고 하겠다. 즉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질환을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각에서 앞으로의 생활이 코로나와 한 동안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갖는다. 즉 위드 코로나는 인류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용어다.

뉴노멀은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표준을 지칭하는 시사용어다. 이 용어는 2004년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을 위해 제시된 경제 용어였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 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된 이후로는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⁶⁾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로저 맥너미(Roger McNameee)에 의하여 2004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새로운 표준: 고위험 시대의 큰 기회』(*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 (2004)라는 저서에서 인터넷 시대의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보편화되는 경제 환경을 정의하고자 했다.⁷⁾

하지만 2019년 발생하여 2020년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 사태 이후,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면접촉 서비스의 불황과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 양태 및 그 영향으로 인하여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⁸⁾

2. 사찰경영

혹자는 경영이라고 하면 영리추구를 위한 활동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찰을 경영한다고 하

5)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coronavirus-world-action-future-global-covid19-pandemic-leadership/>

6)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1340>

7)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1340>

8)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1340>

면 사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경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經營)의 원래의 의미는 사업이나 기업 등의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활동이다.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을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계획·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 가계, 기업, 기관 또는 사찰, 교회 등에 모두 해당한다. 그래서 사찰·교회·학교·병원·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단위나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적 경제단위를 경영한다는 것은 각기 이들 경영체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단체의 경영은 영리추구이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영은 영리추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어 오늘날에는 주로 경영이 기업 경영을 의미하게 되면서 학자의 생각과 같은 오해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로서 사찰경영은 무엇을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사찰(寺刹)에 대한 정의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찰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곳을 목적에 맞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의 사전적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佛道)를 닦는 수행 도량이자 불법(佛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포교의 장이다. 가람(伽藍)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범어의 상가라마(saṅghārama)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이는 중원(衆院) 또는 정사(精舍)라는 뜻으로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등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를 정리하면, 사찰은 사부대중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경영은 불도를 닦고[수행] 교법을 전하기 위한[포교] 목적에 부응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¹⁰⁾

그렇다면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앞에서 사찰경영의 목적이 수행과 포교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찰경영의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사찰경영의 수익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찰경영이 수행과 포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사찰경영의 수익자는 수행과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수행과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는 누구인가?¹¹⁾

불교를 가리켜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요체로 한다. 그리고 불교는 각자 자신의 능력과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정진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행법은 다양하나 모든 수행법은 한결같이 바른 깨달음 즉, 성불(成佛)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성불은 자신을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한 상태, 즉 붓다(Buddha, 깨달은 자)가 됨을 의미한다.¹²⁾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 개개인이 본래 구족한 본성(本性)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 본성

9) 조기룡(2020b), 36-37.

10) 조기룡(2020b), 37.

11) 조기룡(2020b), 37.

12) 조기룡(2020b), 37-38.

은 곧 부처님의 본성으로 경전에서는 이를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한다.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기에 모두가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생이 무명에 가려서 이를 보지 못하기에 수행으로 무명을 걷어내어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생(衆生)의 범위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생명이 있는 것[有情物]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無情物]까지도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곤충이나 미물(微物)들까지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현실적인 이해와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생을 인간에 한정시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¹³⁾

이러한 불성관과 수행관에 의했을 때, 수행을 하는 자와 수행을 받는 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수행이란 본디 자발적·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는 자’는 있어도 ‘받는 자’란 수행의 본 의미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수행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위에서 불성은 일체중생에 깃들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행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일체중생은 누구라도 수행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포교(布教)의 ‘포(布)’는 고대에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던 베로 일종의 통화였으며 널리 유통되고 움직이는 것이므로 제한이 없이 두루 쓰이는 사물이었다. 그러므로 포교란 통화가 널리 유통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불법을 사회에 널리 펼쳐서 중생이 불법에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법을 따르고 지켜서 모두가 이롭고 윤택한 불국정토를 일구는 것이다.¹⁵⁾

괴로움 많은 사바세계의 중생은 본성이 무명에 뒤덮여 탐(貪)·진(瞋)·치(痴) 3독심(毒心)이 생겨나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함에 있어 마음을 제대로 옳게 쓰지 못하게 되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온갖 고난을 겪게 된다. 즉 중생이 진리에 어긋나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란 것이 생기는 것이니, 인간 생활이 진리에서 이탈되는 만큼 중생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다. 이에 중생이 완전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명을 끊고, 맑고 깨끗한 본성을 찾아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생활해야 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냈던 못된 마음을 알아내 없애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님은 전도[포교]를 선언하였다.¹⁶⁾

제자들아! 자, 이제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제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진리·가르침]을 전하라. 또 한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법을

13) 조기룡(2020b), 38.
 14) 조기룡(2020b), 38-39.
 15) 조기룡(2020b), 39.
 16) 조기룡(2020b), 39.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제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세나니가마로 가리라.¹⁷⁾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人天)이 이익 되고 행복하고 안락한 세상, 즉 불국정토의 구현을 위해 포교할 것을 부촉하고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면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는 누구인가, 포교를 하는 자란 능동적 개념으로서 포교의 주체인 법사·비구·전법자 등을 지칭할 수 있으며 통칭하여 포교사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포교를 받는 자란 수동적 개념으로서 포교의 객체라 할 수 있으며 아직 불법(佛法)을 접하지 못한 모든 중생이 해당될 것이다.¹⁹⁾

결국,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한다면, 사찰경영은 일체중생을 위한 경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찰이란 수행과 포교의 장소이기에 사찰경영은 수행과 포교를 위한 경영이어야 하며, 그리고 그 수행과 포교의 주체와 객체는 세론(細論)한 바와 같이 일체중생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찰경영은 사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닌 여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도 아울러 추구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사찰경영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경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행과 포교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自利] 더불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利他] 행위이기 때문에, 사찰경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하는[自利利他] 경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²⁰⁾

자리이타는 자익익타(自益益他)·자리이인(自利利人)·자행화타(自行化他)라고도 한다. 자리(自利)란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노력하고 정진하여 수도(修道)의 공덕(功德)을 쌓아 그로부터 생기는 복락(福樂)과 지혜 등 과덕(果德)의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향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이타(利他)란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해 닦는 공덕을 말한다. 이 2가지를 합하여 이리(二利)라고 한다. 대승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 지향하는 자리적인 수행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자리와 이타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 곧 자리이타의 원만(圓滿)함이 실현된 세계를 목표로 삼아 이러한 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라고 했다.²¹⁾

그렇다면 자리이타의 사찰경영이란 무엇인가? 사찰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행위를 자리이타의 사찰경영이라 할 것이다. 사찰은 성장 경영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사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²²⁾

사찰경영자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어야만 사찰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보다 불

17) 『잡아함경』 권39, 「승삭경(繩索經)」, 『대정장』 2, p.288b.

18) 조기룡(2020b), 40.

19) 조기룡(2020b), 40.

20) 조기룡(2020b), 40-41.

21) 조기룡(2020b), 41.

22) 조기룡(2020b), 41.

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찰과 사회는 연기적(緣起的) 존재인 것이다. 연기법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다. 모든 존재를 서로 깊은 관계 속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더불어’ 하나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사찰경영자는 사찰경영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사찰은 여러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사회의 일 부분이다. 즉 사찰, 사회, 개인은 서로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찰은 사회와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찰은 그것의 다양한 인연 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³⁾

또한 사찰경영자는 혹여나 이타의 행위가 자리를 저해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도겐(道元)은 그의 저서 『정법안장(正法眼藏)』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타를 앞세우면 자기의 이익이 없어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행(利行, 사람을 위해서 이익 되게 하는 것)은 한 법으로써 널리 자타를 이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익의 추구란 자리와 이타가 하나된 행위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사찰은 절대로 사회를 도외시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찰경영에서 창출된 이익은 항상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²⁴⁾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경영자가 ‘자리이타의 경영’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근래에 들어서 기업의 극단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윤리경영이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회와의 나눔과 상생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찰경영론의 핵심인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여야 한다는 ‘자리이타’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마저도 나눔과 상생을 기업의 사상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연기론에 기반을 둔 사찰의 경영은 당연히 자리이타의 경영이어야 할 것이다.²⁵⁾

III. 현황 및 문제

1. 종교 활동의 위축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WHO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다.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이다.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도 한다.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²⁶⁾

23) 조기룡(2020b), 41-42.

24) 조기룡(2020b), 42.

25) 조기룡(2020b), 42~43.

26)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145>

팬데믹은 종교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를 남겼다. 이전 같은 종교모임, 특히 대형집회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종교의 사회적 속성은 모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거나 진리를 닦고자 구성원들이 모여 종교 의례와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고 무서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지 않는 한 감염의 위협은 상수가 될 것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공포가 되어 모이려는 사람의 의지를 여지없이 꺾어버릴 것이다.²⁷⁾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사람들 스스로도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의 법회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여러 사찰 활동도 감소되었다. 수행 모임은 물론 봉사 모임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²⁸⁾ 이런 상황이 불교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가톨릭에서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교황청에서는 성주간 전례²⁹⁾와 부활절 미사를 신자들의 직접 참여 없이 온라인으로 거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³⁰⁾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일부 교회들의 무리한 예배 강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다수의 교회에서는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자제하였다.

2. 교단 재정의 감소

코로나 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나 경제에 주는 충격이 컸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접촉이 금기시 되면서 세계경제의 전반에 걸쳐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정치, 사회, 문화 등이 모두 인간의 삶에 필요하지만 경제는 생계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코로나 19의 경제 여파는 종교계에도 여지없이 밀어닥쳤다. 교회, 성당, 사찰에서의 예배, 미사, 법회의 중지가 사회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종교시설의 운영유지를 위한 비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헌금과 보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의 중지는 곧 수입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¹⁾

코로나 19에 따라 조계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리고 법회 중단과 행사 및 모임 취소·연기 등을 일선 사찰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의 사시예불과 법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도 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사찰들의 재정이 큰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사찰들은 법회 중단으로 인한 기도비 감소와 참배객들이 오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지, 교역직 스님들의 월

27) 김기봉(2020), 107.

28) 최동규(2020), 39.

29) 성주간 전례는 예수그리스도가 수난과 죽음,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이른다. 성주간 전례는 가톨릭교회 전례에서 가장 거룩한 시기이다.

30) 정희완(2020), 14-15.

31) 조기룡(2020a), 33.

보시금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²⁾

예산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고정 지출 비용이 커 재정난이 더욱 심각하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다. 강남에 위치한 서울 봉은사의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행사 중단과 기도객 감소 등으로 1분기 사찰 수입이 예년에 비해 1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 주요 교구본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계총림 송광사는 코로나 19 이후로 1개월간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55% 감소했다. 화엄사는 법회나 각종 순례가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다 관람료도 20% 정도 감소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초하루법회 기준으로 평소의 10% 수준만 기도비가 접수됐고, 입장료 수입도 현격히 줄었다. 금정총림 범어사 역시 평소 대비 10~20% 정도만 운영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³³⁾

이와 같은 일선 사찰과 본사의 재정 부족은 중단 증상으로 이어져서, 조계종은 2021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2020년보다 10% 줄여서 편성하기로 했다.³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단위 사찰들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단위 사찰들이 내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중앙종무기관의 예산도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모든 종교단체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계가 법회 중지를 선언한 것은 사찰의 재정 곤란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사찰의 존폐가 달린 용단이었다. 법회 중지가 사회와 국민을 고려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만 말사부터 본사 그리고 중단증상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녹록치 않다. 등과 재 그리고 기도와 관람료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연쇄적으로 재정 부족에 빠지게 된 것이다. 여타의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사찰에서도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교계의 헌신적 모습이 대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그동안 떨어졌던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남아있다.³⁵⁾

IV. 대응 방안

세계 도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한다. 코로나 19가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에 코로나 19 이후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도 코로나 19가 변화시킨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한편 또 다시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포스트 코로나로의 사회적 변화는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이기에, 본장에서는 비대면의 측면에서 사찰경영의 대응 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찰경영의 사회적 변화 방향을 불교의 사회적 종교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32)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50>

33)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50>

34)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520>

35) 조기룡(2020a), 33.

1. 사이버 신행 문화

사이버(cyber)란 ‘가상의’, ‘컴퓨터상의’, ‘인터넷상의’ 등의 의미들이 함축된 접두어다. 지금까지의 현실 사회(real society)가 물리적 시설과 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off-line) 사회였다면, 사이버 사회(cyber society)는 인터넷에 의한 비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온라인(on-line) 사회다. 전자가 실재공간으로 구성된 사회라면 후자는 가상공간으로 구성된 사회다.³⁶⁾

코로나 19는 불교계에 사이버 신행 문화의 필요성을 체감시켜주었다. 법회와 미사, 예배 등 종교 의례 역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신도들이 많아졌다. 이전 같은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을 통한 종교의례에 대해 신행공동체 차원에서는 거부감이 있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⁷⁾

불자에게 있어서 신행의 기본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이버 법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지만 이제까지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교의 특성상 종교시설에 직접 참여하여 종교행사를 하는 게 보다 경건한 마음을 들게 하고 종교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북돋워준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 대면 법회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대면 법회의 활성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불교계가 그동안 사이버 환경에 소극적이었음을 자각하고, 법당에 직접 참여하는 대면 법회를 유동적으로 지속하면서 사이버 법회가 법회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³⁸⁾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더 종교를 찾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모이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 해결 방법은 21세기가 준 소통의 도구인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 19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정된 오프라인 공간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접촉하기 용이한 온라인 공간에 다양한 영적 내지 종교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교들이 성장할 수 있다. 굳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을 활용하면 된다.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존의 SNS 플랫폼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찾아올만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³⁹⁾

이런 맥락에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온라인상의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각 종교들은 사용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길이에 각자의 핵심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것이다. 각 종교가 온라인 공간에서 전쟁을 치루는 형국이 될 수 있다.⁴⁰⁾ 결국 온라인 공간의 종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불교계

36) 조기룡(2020a), 34.

37) 오수연(2020), 56.

38) 조기룡(2020a), 34.

39) 이길용(2020), 79.

40) 이길용(2020), 79.

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유능한 크리에이터들이 할 수 있도록 영역을 개방하고 개발해야 한다. 즉 불교의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고 섭외해야 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이버 범죄와 더불어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신행 문화가 사찰의 사이버 불교대학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혼란은 교육 현장에서 두드러졌다. 불교대학들도 입학생 모집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¹⁾ 사이버 강의를 준비하지 못한 불교대학들은 개강도 못하고, 지난해 수강생들의 졸업식도 열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혼란 속에서 필자를 포함한 제도권 교육에 몸담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한정된 공간인 강의실을 벗어나 무한한 가상공간이 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이버 강의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극복시켜준다. 대면 강의는 현장에서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지만 비대면 강의는 무한 반복하여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이버 강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번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다’고 평가한다. 사전에 우려했던 많은 문제들은 상당부분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있거나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⁴²⁾

그러나 여전히 사회생활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출가자, 특히 법랍이 많은 스님들은 온라인 소통 도구가 어렵기만 할 수도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대면 의사소통과 그 도구의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IT에 익숙해져야 한다. 앞으로 사찰경영과 불교포교에서 IT의 접목은 필연적이다.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종교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스님 자신부터 IT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찰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선 줌(Zoom), 시스코 웹엑스 미팅스(Cisco Webex Meetings), 구글 미트(Google Meet)를 사용해 신도들과 소통해보기를 권한다.⁴³⁾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불교대학은 가상공간 즉 컴퓨터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강의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데스크톱(desktop), 노트북(notebook), 태블릿(tablet) 등이 있지만 필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스마트폰(smartphone)의 활용을 대표적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의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끈 일등 공신도 스마트폰이다.⁴⁴⁾ 스마트폰은 가정에 있을 때도 회사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역을 이동할 때도 수시로 감염자의 현황과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거의 전 국민이 ‘포노 사피엔스’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노 사피엔스는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 그리고 양자의 혼합 공간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로그(digilog, digital+analog) 문명을 이끈 주요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포노 사피엔스인 오늘의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인 스마트폰은 사이버

41)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50>

42) 조기룡(2020a), 34-35.

43) 최동규(2020), 39-40.

44) 김기봉(2020), 127.

법회와 사이버 불교대학 등 사이버 신행 문화에 있어서 핵심 도구일 수밖에 없다.

2. 온라인 보시 문화

코로나 19에서 경험했듯이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사회생활의 변화는 비대면 접촉이다. 비대면 접촉은 사찰경제에 어려움을 준 1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불교의 신행과 보시는 신도들이 사찰을 직접 방문하고 스님을 대면하는 방식의 문화였다. 사찰을 직접 찾아 등을 접수하고 보시하는 문화가 익숙했었는데 이것이 어려워지자 신행도 보시도 끊겨버린 것이다. 이런 대면 접촉의 불가는 바로 사찰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었다.⁴⁵⁾

코로나 19를 포함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사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간기도 회원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의 모사찰은 6~7년 전부터 산중기도와 지장기도 등 모든 형태의 기도 행사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한 뒤 사찰에 오지 않더라도 스님들이 해당 기도를 해주고 있다. 물론 각각의 기도가 아닌 사찰의 일체 기도에 대한 회원 가입도 가능하다.⁴⁶⁾ 1년을 단위로 특정기도 회원을 모집하는데, CMS자동이체를 통해 월별 또는 연간 결제를 한다. ‘각각의 기도’는 봉축기도, 출가·열반기도, 안거기도부터, 칠석기도, 신중기도, 생전예수재 등 각종 기도에 자유롭게 동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체 기도’는 각각의 기도를 한 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하루와 보름, 지장, 관음, 산신재일의 5재일을 묶어 스님들이 축원하는 재일기도 회원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간기도 회원제’는 현금 제도가 있는 교회와 달리 기도에 따른 들쭉날쭉한 재정구조를 지닌 사찰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신도에게 사찰의 회원이라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신도들의 소속감을 고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⁴⁷⁾ ‘연간기도 회원제’는 코로나 19 사태의 상황에서 비대면을 전제로 한 방식이지만,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되면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사찰은 실제로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완화되고 ‘연간기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법회를 진행했다. 현장법회 시에는 대형스크린과 홈페이지에 동참자 명단을 띄우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휴대전화의 문자 서비스와 카톡 등을 통하여 피드백도 해주고 있었다.

또한 기도가 아닌 불사에 대한 보시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특정 불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온라인 상으로 등을 다는 방식으로 모연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몇몇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의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찰의 마당과 법당에 연등 실물을 달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특정 불사에 대하여 기부를 하면 컴퓨터 모니터상에 연등과 이름이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45) 조기룡(2020a), 35.

46) 조기룡(2020a), 35.

47)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61>

비대면과 가상공간의 활용이 강조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간기도 회원제와 특정 불사 온라인 기부는 적합한 사찰경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아직까지 연간기도 회원제와 특정 불사 온라인 기부는 전체 실행활동에서 비중이 적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한국불교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정 부족과 신도조직화의 개선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

3. 사찰 활동의 공공성 강화

코로나 19의 진행 과정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무리하게 현장예배를 강행한 몇몇 교회들로 인하여 개신교 전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현상이 있었다. 반면 이 시기 사찰들은 자발적으로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지하면서 개신교와는 반대로 불교계 전체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종교조직의 수입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교조직의 수입 중 절대적인 액수는 신도들의 헌금과 보시 등이 차지한다. 코로나 19로 신도들이 종교시설을 찾지 않으면서 교회와 사찰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재정 곤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신교의 일부 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하였지만, 불교는 범종단적으로 대면법회를 중지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 불교는 공공성이 있는 종교로, 개신교는 공공성이 부족한 종교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 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개신교에 분노어린 비난을 퍼부었다.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라는 불문율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왔던 종교로 하여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종교적 행위를 유보하거나 포기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공공성’이다.⁴⁹⁾ 그렇다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다. 이는 대체로 사적인 것에 대립하는 것, 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의 총체로 집계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⁰⁾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종교학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문제가 ‘종교의 공공성’이다. 종교가 사회의 공적 가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서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종교가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에 고립되어 외부의 공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불교의 관점에서는 환경·노동·인권·젠더 문제 등 사회적인 현안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혹여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수 또는 진보와 같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해에 매몰되어 사회적 보편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⁵¹⁾

그동안 이런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일부의 학자나 종교인들 사이에 논의가 국한된 채 실제 종교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재난 사태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일부 종교의 사익 추구가 공

48) 조기룡(2020a), 35.

49) 김창호(2020), 71.

50)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

51) 김창호(2020), 71.

적 가치와 현격하게 거리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종교의 공공성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종교가 비록 자신만의 주관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나아가 필요하면 사회 제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이 이제까지 종교를 굳건히 지켜주었던 ‘종교의 자유’라는 보호막을 벗겨내고 있는 것이다.⁵²⁾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근대국가⁵³⁾는 그 기원적 자원 중 하나인 종교적 자원들을 존중해야 하고, 종교도 국가의 법과 합리성을 존중하면서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지구적 연대가 필요한 시대에 사회적 작용과 소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인 종교는 근대주의⁵⁵⁾의 기원적 자원을 공급해야 한다.⁵⁶⁾ 지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공동의 선’의 가치와 연대하는 일에 사찰이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에 직면하여 종교는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연대와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선에 기여해 왔다.’⁵⁷⁾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는 ‘지구화’와 ‘종교’가 공동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종교의 이상으로써 ‘인간의 번영’이 실현되는 지구화를 윤리적으로 주장한다. 종교의 본래적 이상인 ‘모든 인간의 번영’이라는 가치가 지구화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번영, 자기, 사회적 관계, 선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는 방법과 그 비전에 따라 살 수 있게 사람들의 성품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⁵⁸⁾

코로나 19의 사태 속에서 위기는 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받아왔던 종교에 대한 공적 개입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⁵⁹⁾ 이와 같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공공성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든 주체가 사회적·공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도 이런 사회적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찰경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찰이 사찰의 내적 활동 위주로 운영을 해왔다. 사회를 향하여 포교를 하면서도 그 지향점은 신도수의 증가와 같은 사찰 내부의 성장인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이어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논의한다. 코로나의 완전 정복이 아닌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찰은 세상에서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것을 사찰경영의 주요한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52) 김창호(2020), 71.

53) 근대국가는 봉건국가와 근세 절대주의 국가가 무너진 뒤 성립되었다.

54) Jürgen Habermas(2008), 121.

55) 근대주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이나 풍물 등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립하여 근대적이고 기계 문명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상이나 예술의 경향을 의미한다.

56) Hent de Vries(2013), 228-229.

57) 성석환(2020), 158.

58) Miroslav Volf, 양혜원 역, (2017), 234-235.

59) 김창호(2020), 71.

4. 위로감과 안정감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상황은 물론 인식까지도 바뀌는 뉴 노멀(New Normal)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뉴 노멀이란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기준이 사회에 자리 잡아 가는 것이다.⁶⁰⁾ 이와 같은 현상은 종교계에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예식 역시 정부와 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종교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공동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요즘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⁶¹⁾ 오히려 종교예식을 위하여 현장에 참여하면 공공성을 위배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 역시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발생한 뉴 노멀 현상이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을 지칭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blue)’의 합성어이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를 말한다.⁶²⁾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창한 날씨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타인과 교류도 줄어들면서,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현상이다.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명상에플리케이션(이하 명상앱)이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달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음보기 명상앱인 ‘마보’는 유입자가 2020년 2월에 전월보다 2배 증가했고, 가입자는 같은 기간 9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불교명상앱인 ‘코끼리’는 국내 1위의 명상앱이 되었다. ‘코끼리’는 수제맥주 업체인 더부스(THE BOOTH)를 창업한 다니엘 튜더(Daniel Tudor)와 헤민스님이 함께 만든 서비스다. 기본 명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명상, 잠이 잘오는 명상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한다.⁶³⁾

뉴 노멀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 흔한 것, 즉 정상적인 것이 돼 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종교의 차원에서 이해해보면, 종교가 본래의 기능인 위로와 안정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코로나 19의 상황을 맞이하여 이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개인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각 종교에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돌아보도록 만들고 있다. 그 점에서 코로나 19는 종교적이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필자에게 종교의 기능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도가 되어있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종교들 특히 불교는 젊은 신도들의 감

60) 오수연(2020), 55.

61) 오수연(2020), 56.

62)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1238>

63) 오수연(2020), 58.

소를 중단과 사찰의 존립이 달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에게는 놀라움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든 것은 어쩌면 신천지 교단의 기만적이고 위장된 선교전략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를 찾은 이유는 기성종교들이 그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성종교의 시스템이 젊은이들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성종교의 의례와 예식이 젊은이들의 정서와 감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기성종교가 주장하는 교리와 규율이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성직자와 교역자 중심의 운영 구조가 젊은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⁶⁴⁾

이제 한국불교는 젊은이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종교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택배를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청년도, 부실기업에 다니며 실직을 불안해하는 청년도, 이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저마다의 위로와 안정이 필요했고,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불교는 이 젊은이들의 필요와 요청을 제대로 읽어내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⁶⁵⁾ 한국불교는 지금 깨달음의 알아차림에 앞서 중생교의 알아차림이 필요한 시기다.

64) 정희완(2020), 17.

65) 정희완(2020), 17.

V. 결론

한국불교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강조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부대중이 공동체가 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사찰의 운영과 관리는 스님들만의 몫이 아니라 신도들이 공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여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자신의 복만 빌고 사찰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주인으로서 사찰의 대소사를 살피고 참여해야 한다. 상당수의 신도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도하기 위해서만 사찰을 찾기 때문에 사찰의 소임이나 일을 부탁하면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기 바쁘다. 코로나 19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사찰경영에 있어서 분명한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사부대중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도들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사찰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비록 코로나 19가 불교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겨주었지만 지금은 사부대중이 공동체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⁶⁶⁾

이와 같이 사부대중이 공동체가 되어 사찰을 운영하면서도 불교의 종교적인 대사회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코로나 19 이후 ‘뉴 노멀’의 핵심은 ‘공공성’ 내지 ‘공동의 선’의 실현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범회를 하지 못하면서 교회와 사찰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교들이 돌봄과 생명 같은 윤리적 가치를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제 종교는 임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를 넘어서 모두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오늘의 인류적 위기 상황에서 이 일을 수행할 주체 중 하나는 불교이며, 한국불교는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공급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⁶⁷⁾

만약 한국불교가 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19 이후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뉴 노멀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사찰은 신도와 재정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불교가 시대적 요청에 책임적으로 응답하여 한국사회의 ‘공공성’ 내지 ‘공동의 선’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66) 조기룡(2020a), 35.

67) 성석환(2020), 163.

<참고문헌>

- 김기봉(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문화연구소.
- 김창호(2020), 「코로나-19, 종교, 그리고 공공성을 생각한다」, 『월간 공공정책』 174, 한국자치학회.
- 성석환(2020), 「코로나 19시대 뉴 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동의 선’과 한국교회」, 『기독교사회윤리』 4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 오수연(2020), 「위기가 일상화되는 뉴노멀이 온다」, 『마케팅』 54(5), 한국마케팅연구원.
- 이길용(2020), 「포스트 코로나 19, 종교의 미래」, 『활천』 800(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 정희완(2020), 「코로나 시대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생각, 하나: 신천지 젊은이들을 보며」, 『사목정보』 13(3), 미래사목연구소.
- 조기룡(2020a), 「사찰공동체는 어디로」, 『불광』 548, 서울: 불광출판사.
- 조기룡(2020b), 『사찰경영, 부처님법대로 하면 잘된다』, 파주: 올리브그린.
- 최동규(2020), 「뉴노멀 시대의 목회」, 『활천』 803(1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 Habermas, Jürgen(2008), *Between Naturalism and Religion*, Cambridge: Polity.
- Volf, Miroslav, 양혜원 역(2017), 『인간의 변영』, 서울: IVP.
- Vries, Hent de.(2013), “Global Religion and the Postsecular Challenge” in *Habermas and Religion*, Craig Calhoun, Eduardo Mendie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Cambridge: Polity.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145>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238>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322>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340>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520>
-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
-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50>
-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61>
-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coronavirus-world-action-future-global-covid19-pandemic-leadership/>
- <https://www.wsj.com/articles/the-coronavirus-pandemic-will-forever-alter-the-world-order-11585953005>

■ Abstract

Temple Management Plan in the Post-Corona Era

Cho, Ki-ryong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Korean Buddhism is concerned about the management of temples. Most of the worries are the decline in temple finances arising from shrinking religious activities. However, at the present time, one year after the outbreak of Corona 19, and entering the post-corona, Korean Buddhism must fundamentally consider the religious function of Buddhism. This is because the fear of Corona, which threatens even human life, can be a factor that activates the function of Buddhism as a religion. The function of religion is to provide well-being and happiness to human beings, because it is in line with the Buddha's evangelism declaration.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solutions to the main concerns of Buddhist temple management in the post-corona era, such as life of faith and religious donation, as well as the religious functions and roles that Buddhism will perform socially. Life of faith and religious donation in the post-corona era will be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 of cyber and online. And in the post-corona era, the social and religious functions of Buddhism will be s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publicity and providing comfort and stability.

Keywords ● Corona 19, Post-Corona, With-Corona, Temple Management, Temple Finance, Publicity of Religion, Role of Religion, Cyber Mission, Online Donation

■ 논문투고일 : 2021. 5. 17 ■ 심사완료일 : 2021. 6. 13 ■ 게재확정일 : 2021. 6. 15